

## 開 會 辭

2016. 12. 14. (수) 10:00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 은 보

##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입니다.

아름다운 해양수도 부산에서  
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2016년 부산 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산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태 의원님,  
오늘 포럼 진행을 도와주신  
차승민 금융도시부산포럼 이사장님,

정찬우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님,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

귀한 시간을 내어 부산을 방문해주신  
마크 옌들(Mark Yeandle) 쟈(Z/YEN) 그룹 부국장님과,

케빈 스테판슨(Kevin Stephenson) FATF TREIN 원장님을 비롯한  
주제 발표자, 국내외 경제·금융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산 국제금융포럼은  
국제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국제적인 해양·파생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부산의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이 부산과 한국금융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의 지혜와 경륜이 모아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II.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경과

정부는 2003년 금융허브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2008년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금융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 1월에는  
서울 여의도와 함께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였고,  
이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금융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금융중심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등  
다수의 금융공기업들이 이전하였고,

해양금융종합센터 출범('14.11월),  
한국해양보증보험 설립('15.8월) 등  
부산이 선박·해양금융에 특화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를 통한  
다양한 파생상품의 신규출시, 진입규제 합리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파생금융 중심지로서의 부산의 발전을 지원해 왔습니다.

아울러 부산 국제금융연수원 개원('14.9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연구원(FATF TREIN)  
유치('16.8월) 등으로,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갖추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전문금융인력 양성과정 개설도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처음 금융중심지 정책을 수립할 당시인 **2003년**에는  
순위권 밖이었던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2014년부터 꾸준히 순위권 내에 올라오는 등**  
부산의 국제적 인지도도 제고되었습니다.

◆ GFCI(Global Financial Centre Index) 국제금융센터 순위  
\* 서울: ('09.3월) 53위 →('15.9월) 6위 →('16.3월) 12위 →('16.9월) 14위  
부산: ('14.3월) 27위 →('15.9월) 24위 →('16.3월) 38위 →('16.9월) 41위  
\*\* 종합순위('16.9월): 런던(1), 뉴욕(2), 싱가포르(3), 홍콩(4), 동경(5), 샌프란시스코(6)

### Ⅲ.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방향

내외 귀빈 여러분!

금융중심지를 둘러싼 글로벌 금융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및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비용감축 노력과 함께  
지역별 거점지를 일원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핀테크를 포함한 ICT의 급격한 발전은  
금융회사의 물리적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세계적 자본이  
좋은 투자처와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찾아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집중되는  
승자독식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심화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부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4차 금융중심지 3개년 계획 수립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우리 금융산업의 SWOT 분석 등을 바탕으로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자본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보다 많이 거래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금융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함께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도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입니다.

부산의 경우

해양·파생 특화 중심지로서의 강점들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제 금융거래와 금융회사의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VI. 맺음말

---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Victor Hugo)는

“미래는 여러 이름을 갖고 있다.

약한 자들에게는 불가능,

겁 많은 자들에게는 미지,

용기 있는 자들에게는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 가는 것은 늘 힘든 일이지만

“국제적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이라는 미래를 향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할 때

지금의 대내외적 어려움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중에

이 자리를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